

###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

####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OF ADVENT

주후 2020년 12월 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33 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새 48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9 번 빌립보서 2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Ephesians) 4:1-6	임소영 집사
한어 설교 Korean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 (4) – 하나됨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For Unity)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희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화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거짓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는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날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2-3)

####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글개역 **엡 4:2-3**)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NIV **Ephesians 4:2-3**)

####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6 (주일)	12/7 (월)	12/8 (화)	12/9 (수)	12/10 (목)	12/11 (금)	12/12 (토)
	대하6:12-42	대하7	대하8	대하9	대하10	대하11,12	대하13
본문	요일5	요이1	요삼1	유1	계1	계2	계3
	합1	합2	합3	습1	습2	습3	학1
	눅20	눅21	눅22	눅23	눅24	요1	요2

####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2/9 오후730)	“도피성이 되게 하라” (민35:9-15, 26-34)
토요 새벽기도회 (12/12 오전630)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의지합니다”(시18:1-2, 24-30)

#### 지난 주일(11/29) 말씀

#### “다시 만나는 교회 (3) – 믿음으로” (롬 1:16-20)

(일명) 'Little Gospel (복음의 요약)'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에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서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것 같은데,  
사랑 이전에, 믿음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사랑의 실현을 위한 그 첫 출발점이 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아래와 같이 영문 첫글자를 따서, **믿음의 A. B. C**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1) '**A**'는 **Acceptance (받아들임)**으로서, 이는 우리 믿음의 첫걸음에 해당하고  
(요1:11-12),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Total Acceptance of the Total Acceptance)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2) '**B**'는 **Belonging (하나님께 속함)**으로서, 이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롬1:16)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갑자기) 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속함으로 인해, (감히) 불완전한 우리도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 '**C**'는 **Change (근본적 변화)**로서, 이는 '소유 양식'이 아닌 '존재  
양식'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참고, 눅19장 삭개오의 경우).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의 전 단계인 **믿음의 A. B. C** (Accepting Faith 받아들이는  
믿음, Belonging Faith 하나님께 속한 믿음, Changing Faith 존재양식이 변하는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설/교/ 메/모